



코스피(100)	코스닥
3278.68 (+20.05P)	998.49 (+1.12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17.20 (+0.20원)	1.286% (-0.021%p)

이베이 품은 신세계 '초대형 이커머스' 탄생

신세계그룹이 이커머스 '대어' 이베이코리아를 뒀다. ▶관련기사 3면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신세계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롯데를 제치고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사실상 확정 지었다. 오프라인 유통 공룡인 신세계그룹이 새로운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로 거듭나게 됐다.

인수 주체는 이마트다. 매각 대상은 미국 이베이 본사가 보유한 이베이코리아 지분 100%다.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4조 원대로 추정된다. 막판까지 경쟁했던 롯데그룹은 3조 원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져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보인 신세계그룹이 승리를 거머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금 일부를 '혈맹'인 네이버가 지원해 신세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는 올해 3월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에 합의하며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두 회사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 제치고 인수 사실상 확정 신세계, 단숨에 업계 2위 점프 네이버와 연합, 쿠팡-카카오 추월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해 신세계그룹은 단숨에 거래액 기준 이커머스 업계 '2위'로 도약했다. SSG닷컴(3조9000억 원)과 이베이코리아(20조 원)의 거래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24조 원 규모다. 쿠팡(22조 원)보다 많고 네이버(27조 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연합군을 형성한 네이버와 신세계그룹, 이베이코리아의 거래액을 다 합하면 연간 50조 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기준 시장점유율은 G마켓과 옥션, G9 등 3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12%, 네이버는 18%, 쿠팡은 13%로 추정된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SSG닷컴 점유율 3%를 고려하면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신세계-네이버의 점유율은 33%로 쿠팡에 크게 앞선다.

이베이코리아는 2000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G마켓과 옥션, G9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오랜 기간 이커머스 사업을 통해 특화된 기술력과 인적 자원, 오픈마켓 운영 노하우 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편의점 등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춘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인 SSG닷컴이 아직 3% 남짓한 시장 점유율에 머물렀다. 이번 인수를 통해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에서도 기존 1, 2위 업체인 네이버와 쿠팡에 견줄 만한 톱티어(top-tier-일류) 업체로 발돋움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업계에선 이커머스 시장이 '네이버-신세계 연합 VS 쿠팡'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이커머스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를 다시 품기로 하면서 이커머스 경쟁은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금감원 "부실코인 속겠다" 거래소 관리·감독 TF 가동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검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주무부처가 된 만큼 본격적으로 시장 감독 및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최근 조직됐다. TF팀은 7명으로 구성됐으며,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해 한 달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금융 감독국과 함께 감독총괄국 산하에 조직됐다. 김근의 수석부원장이 총괄한다. TF 조직은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무를 도맡으면서 금감원도 발맞춰 관련 조직을 꾸린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업무를 이미 시작했다. 14일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7일부터 16일까지 시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에 가상화폐 시장 주무부처로 지정됐다. 가상화폐 시장 관리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 끝에 금융위가 도맡게 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곧바로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초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감독·검사 계획 수립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슈 민감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감독 당국의 행보가 자칫 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주무부처 지정 이후 덩달아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25개 코인을 유의 종목에 지정하며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섰다. 업비트의 결정에 해당 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40% 이상 폭락했다. 일부 투자자는 업비트의 관련 행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상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스페인 국민방문한 文 '극진한 환대'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마드리드 왕궁에서 김정은 여사,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함께 국빈만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드리드(스페인)/연합뉴스

송영길 "신용카드 캐시백·전국민 지원금 추진"

3분기 결제 증가분 일정비율 환급 이준석 의석한 '청년장관' 신설 건의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종결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청년층 지지로 부각한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5면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 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소

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중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중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 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다.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이다.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초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알림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폐자원활용 방안
"폐자원에서 찾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

6월 24일(14:00~18:3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1F)

이투데이는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국내외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를 초청해 탄소중립시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지속가능한 폐자원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limature Energy Summit Seoul, CESS) 2021' 행사를 6월 24일 개최합니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카를로스 실바 필류(Carlos Silva Filho) ISWA (International Solid Waste Association) 대표, 양구라 작가가 기초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제1회의에서는 '폐자원 에너지화의 기술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구재희 고등기술연구원 박사, 임성목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린뉴딜사업부장, 홍성민 롯데케미칼친환경연구부파트장이 발표를 합니다. 이어 서울철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제2회의에서는 '폐자원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티모시 굿슨(Timothy Goodson)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 애널리스트, 아마르딕 완더(Amardeep Wander) 아시아태평양 폐기물 컨설턴트(Asia Pacific Waste Consultants) 프로젝트 디렉터, 한경에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KL본부 전무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상현 법무법인(유) 세중 파트너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최 '이투데이, (재)기후변화센터
주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폐자원활용 방안 "폐자원에서 찾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14:00~18:30
장소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그랜드볼룸 1층(서울시 영등포구여의대로 24)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서울특별시, 기상청
문의 이투데이 사업부 02-799-2683

“50인 미만 사업장 중 7%만 주52시간 준수 어려워”

고용부 현장지원 방안 발표 안착 위해 ‘특례 보증’ 확대 외국인 노동자 우선 배정 재계 요구 제도기간 연장 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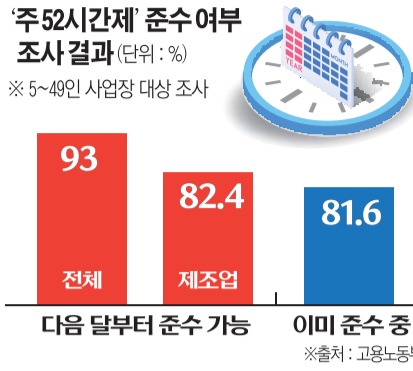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금융 우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도 계속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 기업이 신규 채용할 경우 중



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80만 원의 인건비를 1~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보증비율 85%를 90%로 상향, 보증료

0.3% 감면)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현장지원 방안은 기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추가 준비기간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경영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준비기간을 줄 것과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거듭 촉

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 4월 5~49인 기업 1300곳(제조+비제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3.0%(제조업 82.4%), ‘불가능’ 비율은 7.0%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2월 설문조사(90.2%·9.8%) 때보다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 불가능’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있는 만큼 주 52시간제가 이들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계 첫 ‘백신 접종 휴가비’ 준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백신 휴가비에 만 약 1조5000억 원이 소요돼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

특고·자영업자 접종 장려 관련 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재부 “최소 1.5조 필요”

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전 근로자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하루 7만 원 지급을 가정해 약 1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 반응과 무관한 신청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특고·프리랜서, 주부 등 비근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항진 복지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에서 “3월 말까지 이상 반응 의심신고 사례는 전체의 0.65% 수준임에도 전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비용 지원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청 자료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백신 휴가를 주고 있지만, 휴가비를 주는 나라는 전혀 없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전문직 일자리 위협하는 재택근무

英, 600만개 아웃소싱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보편화한 재택근무 확산이 약 600만 개의 영국의 전문직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에 기반을 둔 5개 일자리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다른 나라로 아웃소싱(외부하청)될 수 있으며, 이는 보수가 좋은 화이트칼라 전문직의 고용을 위

협할 수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세운 국제변화연구소는 그래픽 디자이너에서부터 프로그래머에 이르기까지 영국 런던과 남동부에 다수 포진된 590만 명의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anywhere workers)’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58%가 비용 절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변효선 기자 hsbun@

AZ 백신접종 ‘희귀 혈전증’ 2번째 판정 30대 男 사망

영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희귀 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받은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

성 혈전증 확정 사례 환자분께서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AZ 잔여 백신을 접종 뒤 9일 만인 이달 5일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전날 상급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쿠팡과 진검승부... 네이버, 카카오 약진 견제

이커머스 '편의 전쟁' 본격화

신세계그룹이 연간 거래액 20조 원 규모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프라인 유통공룡인 신세계그룹이 시장점유율 3위인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해 단순 이커머스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다. 그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이 압도적인 '톱2'를 형성하는 대결 구도였으나 이베이를 인수한 신세계가 네이버와 지분 맞교환을 통해 '혈맹'을 맺으면서 '신세계(이베이)-네이버'라는 절대강자로 등장했다. 상위 2~3개 업체만 남은 승자 독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커머스 업계는 '편의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에 제안한 금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4조 원대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롯데가 이보다 적은 3조 원대 가격을 적어내며 '정량평가' 측면에서 신세계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3조9000억 원)과 이베이코리아의 거래액(20조 원)을 합하면 약 24조 원 규모에 달한다. 네이버 거래액(27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쿠팡 거래액(22조 원)보다 많다. 점유율로 보면 기존 3%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플레이어가 단숨에 15% 수준까지 끌어올린 셈이다.

최근 수년간 온·오프라인 연계에 그룹 역량을 집중해온 신세계그룹은 통합 온라인몰을 표방하는 'SSG닷컴'을 주축으로 G마켓, 옥션의 온라인 플랫폼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오프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멤버십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양 날개를 갖춘 신세계의 등장은 이커머스 업계에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인수전 이후 이커머스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파전' 같은 '3파전'이 이뤄질

신세계, 거래액 합산 24兆 '경쟁' 시장 점유율도 '3%→15%' 확대

쿠팡, 美상장으로 5兆 실탄 장전 카카오, 커머스 합병 반격 나설 듯

성장 정체 등 승자의 저주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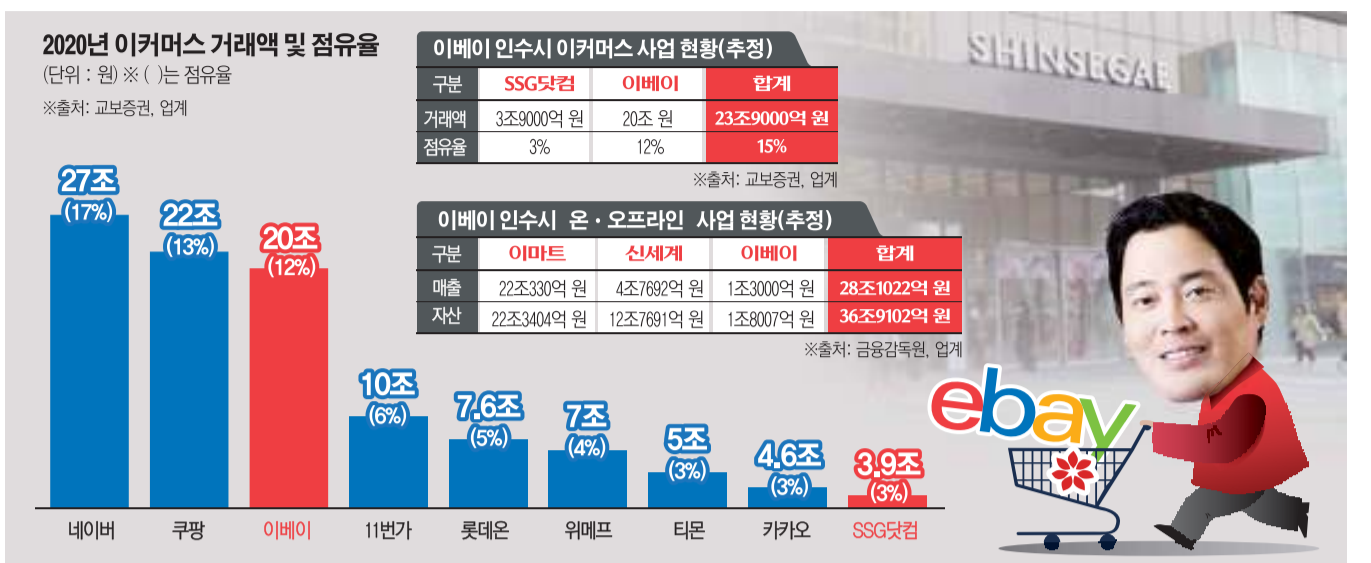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점유율 기준 랭킹 1위 네이버와 신세계가 이미 연합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올해 3월 네이버를 직접 찾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만나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이라는 '빅딜'을 성사시키고 서로 고객, 물류망, 셀러 등을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맺었다.

네이버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신세계와 컨소시엄을 구성, 향후 지분 2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의 인수 부담을 1조 원가량 줄여줬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커머스 대결 구도는 '신세계-네이버 연합 VS 쿠팡'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당치'로만 봤을 땐 연합군이 쿠팡을 압도한다. 네이버-신세계 연합의 거래액은 단순 합계로만 지난해 기준 50조 원이 넘는다. 시장점유율은 3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쿠팡도 손 놓고 있을 리 없다.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쿠팡은 5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고 국내 석권을 향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대구, 창원, 김해를 비롯해 광주까지 전국에 콜드체인을 갖춘 물류센터들 건립, 신선식품 빠른 배송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유통회사가 지난해 택배 운송사업자격을 획득해 오픈마켓에서도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도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했다. 카



카오는 이커머스 업계 공룡에 대항하기 위해 이커머스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를 분사한 지 3년도 안 돼 다시 합병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시장의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는 최근 라이브커머스(라방)를 강화하고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인수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4조 원대 인수가격을 둘러싼 '승자의 저

주' 우려도 신세계가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고,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베이코리아는 2019년 매출 1조 원을 넘어섰고 이커머스 업계 유일한 흑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시장이 싼 가격으로 경쟁했던 과

거와 달리 신선식품과 빠른 배송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이베이코리아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비롯해 자체 물류망을 갖추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신세계의 기존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 플랫폼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세계그룹은 비싼 값을 치렀다는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베이 농친 롯데, 통합몰 재설계 가닥

나영호 대표 체제로 반등 노려 "M&A 등 외부 협력 지속 검토"

롯데그룹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신세계-네이버 컨소시엄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분간 시장에 나오기 힘든 대규모 매물을 농친 롯데그룹이 향후 이커머스 전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롯데는 새로운 롯데온 대표를 필두로 그룹 통합몰인 롯데온의 전반적인 재설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신세계그룹에 밀렸다. 쉰년 인수가격이 신세계-네이버 연합군과 비교해 수천억 원가량 적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인수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롯데그룹 내부에서 매각 대금 산정과 관련해 줄곧 보수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적인 베팅이 아니라 자금 출혈 최소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롯데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의지는 신세계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업계에선 힘을 얻는다.

16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인수 검토 과정에서 기대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며 "인수 이후 추가 비용 소요도 예상돼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수 적정 금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롯데그룹은 우선 '나영호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그룹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롯데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4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대표로 이베이코리아 출신 나영호 대표를 영입해 반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에서 스마일페이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해 온 나 대표는 롯데온에 부족한 '이커머스 DNA'를 이식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열린 1주년 기념 행사 '온세상 새로고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내부적으로 "부진 탈출의 희망을 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행사 첫날 매출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올랐고, 방문 고객 수도 평소 대비 5배 이상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구매 고객 수도 전년 대비 7배 많았으며, 구매 고객 중 첫 구매 고객 비율이 15%에 달해 신규 고객 유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온은 이외에도 롯데면세점과 함께 100억 원 규모 명품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대표 행사인 '퍼스트먼데이'를 강화하는 등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가치 창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M&A를 비롯한 외부와의 협정도 계속 검토한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KB 금융그룹 | 국민 자산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치료비 걱정하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마음 편히 치료받는 건강한 이야기로!

KB손해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위험은 줄이고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보장(특약)
보장은 넓히고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보장(특약)
건강은 더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예금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해지급금을 합하여 10년 최고 5천만원이며, 5천원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장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장계약을 체결시 보장인수가 가중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액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계약 전 지체인 상품 내용과 계약사안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납부의 경우 주가는 10, 15, 20, 30이되며 최대 경신 종료 나이는 110세입니다. 또한 경신사망의 보험료는 연명증거 위험을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경신사망 연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경신사망의 보험료는 최초계약당시 전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 및 재439049(2021.06.14)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고객센터: 1544-0114

배달쓰레기 대란 해법으로 떠오른 '용기 두께 1mm'



녹색연합이 4월 20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일회용 배달 쓰레기 문제 해결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연구용역서 중량 28% 감소 백색·반투명 PP로 소재 일원화 업계 '부정적' 화학사 "수요 창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A 씨는 최근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집밥이 사라진 식탁은 배달음식들로 채워졌다. 장을 보고 상을 차리는 수고를 덜기에는 배달음식이 가장 적합했다. 배달 횟수는 더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된 탓이다. A 씨 집 앞에는 먹고 난 배달용기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배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배달 용기 표준화 방안을 담은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자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오철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연구실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은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배달 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지난달 공개됐다.

보고서는 배달 용기 샘플별로 적정 두께와 중량을 산출해 제시했다. 예컨대 자장

면 용기 몸체와 뚜껑 두께를 각각 1.0mm, 0.4mm로 만들면 중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죽 전문점 브랜드 '본죽' 배달 용기 몸체를 0.9mm, 뚜껑을 0.4mm로 만들면 중량을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같은 방식으로 배달 용기를 모두 표준화하면 중량을 평균 28%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가 배달 용기 생산업체 2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배달 용기 생산량은 11만957톤으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다. 4년 전인 2016년(6만4081톤)과 비교하면 73.2%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음식 배달시장이 성장한 영향이 컸다. 표준화안(案)은 배송시간, 압축 강도, 유통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결과로 작성됐다.

배달 용기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배달 용기는 PP와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으로 제작된다.

보고서는 배달 용기 몸체와 뚜껑을 PP 재질로 제작하고 색상을 백색이나 반투명으로 하는 안을 내놨다.

배달 용기 친환경 인증에 관한 인증기준 안도 제시했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탕·죽·도시락 등 용기별 두께(몸체 기준)는 0.6~1.0mm로 하고 PP 재질의 반투명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배달 용기를 감량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부정적"이라며 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 화학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배달 용기를 표준화하면 그에 따른 수요가 창출되고 PP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100톤 생산하던 것을 90톤밖에 생산 못 할 수도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배달 용기는 국내 제조 물량도 있지만 고부가제품이 아니어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양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기자 kdy@

잡코인 죽여야 거래소가 산다, 9월까지 상폐 지속 전망

업비트 이어 코인빗 8종 '상폐' 계좌발급 위해 감점요소 줄이기 특금법 시행 전까지 혼란 불가피

9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거래대금 규모 기준 3위 거래소인 코인빗도 이른바 '잡코인' 쉼어내기 대열에 합류했다. 상장 폐지된 코인 외에 유의종목 지정 코인만 50여 개에 달해 심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 신고 과정에서 감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위험이 큰 잡코인을 정리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코인빗은 전날 밤 10시 2분 '가상 자산 거래 지원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코인빗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8종의 가상자산이 팀 역량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역량 등 글로벌 유동성 등을 평가하는 내부 거래 지원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23일 오후 8시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고 알렸다.

거래 지원 종료 대상인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폴(UPT), 텍스(DEX), 프로토(PROTO), 텍스터(DXR), 넥스트(NET)이다. 코인빗은 공지를 올린 시간부터 8종의 코인에 대해 출금만 지원하며, 출금 서비스도 29일 오후 8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그만둔다는 것은 해당 코인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코인빗은 메트로로드(MEL), 서버블록(SBC), 라온(RAO), 헤라(HERA), 디콘(DKON) 등 28종의 코인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23일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코인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11일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이그니스(IGNIS), 디마켓(DMT) 등 25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5종의 코인은 18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업비트에서 5종의 코인은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코인빗과 업비트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업계에서 감도는 잡코인 정리 분위기와 무

알트코인 정리 나선 가상화폐 거래소

원화마켓 제거 코인	UPbit	Coinbit
코인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폴(UPT), 텍스(DEX), 프로토(PROTO), 텍스터(DXR), 넥스트(NET)
유의종목 지정 코인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이그니스(IGNIS), 디마켓(DMT), 아인스타이늄(EMC2), 트웰브십스(TSHP), 램다(LAMB), 엔드르(EDR), 픽셀(PXL), 피카(PICA), 레드코인(RDD), 링엑스(RINGX), 바이트코인(VITE), 아이팀(ITAM), 시스템(SYS), 베이직(BASIC), 엔엑스티(NXT), 비에프코인(BFT), 뉴클리어스비전(NCASH), 퓨전(FSN), 플라인(PI), 리피오코인네트워크(RCN), 프로피(PRO), 아라곤(ANT)	메트로로드(MEL), 서버블록(SBC), 라온(RAO), 헤라(HERA), 디콘(DKON), 홀인원(HIO), 네오블럭(NEB), 크로노(CRONO), 쿠폰체인(CCT), 카론(KARON), 페이스 토큰(FNT), 파이크(PKC), 페어체인(FAC), 디오(DO), 갤럭시파이(GXYF), 젤페이(GEL), 카이퍼(KIP), 에스랩(SLAB), 플랫넷(PNT), 엑스폭(XFOC), 아몬드(AMON), 에스코인(SSC), 하이렛(HLT), 다비온(DAVP), 아이퓨엘(IFUEL), 엠버릿지(MBT), 주(ZOO), 아쿠아리움(AQUA)

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라고는 하나 7일부터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소의 잡코인 쉼어내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과 관련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코인을 다수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될 법한 코인, 특히 원화마켓의 코인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당국에서 일정 등급 이하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온다면 한꺼번에 정리가 되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시장에 충격이 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 개별로 야금야금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별로 워낙 차이가 있는 데다 정확한 통계나 파악된 게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다수 거래소가 원화마켓 위주로 운영하는 거로 안다"며 "이 때문에 상장 폐지, 유의종목 지정 코인 역시 원화마켓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택배기사 '집배송'만 日 최대 12시간 근로 과로방지책 잠정합의

우체국 노조 추가 논의키로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회의를 통해 택배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노사는 합의했다. 또 분류 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노사는 확인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은 철회했다. 대신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노사는 약속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해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가합의로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조 파업은 이르면 17일부터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경연 "中 의존 줄이고 美 공급망 강화 참여해야"

'바이든시대 대응 전략'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을 한국 경제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6일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공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이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이라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미국 중심의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으로 경제블록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으로 작성된 '100일 평가보고서'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 창설을 제안한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과 우호국 포함 50여 개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 GDP 가운데 65.8%(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 다자간 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가 단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의 두 가지 핵심축으로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한 국제협력·공급망 안정을 꼽았다.

100일 평가보고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향후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s·고기술 산업 중 선두기술이 내재된 상품)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ATP 수입 중 중국 순위는 대부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상당히 낮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kdy@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개숙인 宋 “변하지 않으면 도태...내로남불 혁파할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쇠신의 가치 아래 과오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 내로남불'을 짚는다면,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바꿨다'면서 변모하는 태도로 한발 내디뎠다. 2030 세대의 지지 아래 정치권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의식한 듯 연설은 '청년'에 방점이 찍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30세대 민심 이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청년 재난 시대'라고 명명하며 지지층으로 여겼던 청년층의 이탈을 수습하려는 방안으로 '청년특입장관' 신설 카드를 꺼냈다. 청년 장관직 발안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그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

2030 의식 '청년 재난시대' 명명 '당내 민주주의·소통 부재' 반성도 '상위 2% 중부세' 세제개편은 힘로 국민의힘 "뜯구름 잡는 연설" 비판

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4·7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내로남불' 등 문제를 열거했다. 송 대표는 과감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중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으면 증기분의 일정 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부동산 세제 완화 개편안을 관철하는 데 있어 협력이 예상된다. 상위 2%에만 중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존 특유안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정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연설 당시 아쉬워하지 않았지만, 연설 이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주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고문이나 민생 파탄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라며 "이번 연설은 총론만 있고, 각론 제시는 없는 뜯구름 잡는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대체공휴일 확대, 정부 반대 '난항'

노동법 등과 상충...경총도 "영세사업자 부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체공휴일 확대를 담은 제정법률안이 정부 측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도 '영세사업자 부담'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제정안 8건에 대한 입법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소위에서 정부는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해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한 행정위원은 "근로기준법 등과 충돌되는 부분들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됐는데 민주당이 성급하게 안을 올려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들에 적용토록 돼 있

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 대체공휴일 확대안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토록 돼있다.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경총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들이 제시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며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공휴일 유급보장으로 인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면 제품·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국민에게 돌아와 악순환"이라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에 게 발언 기회를 줬다. 장 본부장은 "주 52시간제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거들었다.

김윤호 기자 uknow@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취임인사 차 예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준석·안철수 '합당' 손잡았다

국힘 사무총장 인선後 실무진 가동 권은희 주장 '당명 변경'도 논의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두 대표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직 인선이 끝난 후 합당을 위한 실무진을 가동할 전망이다. 당명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실무진 가동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6일 취임인사 차 안 대표를 예방했다. 두 대표 간 만남의 키워드는 '합당'이었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두 당 간 통합 논의 아니겠느냐"며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속하게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실무협상에 박차를 가하지는 안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며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비공개회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는 약 1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취재진에게 합당과 관련한

논의 내용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각 당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며 "버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아마 대권 주자들의 당 진입이나 이런 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합당을 통해 국민에게 의지를 보이자고 했고 안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얘기했다.

협상 실무진으로 알려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하며 이목을 모았던 '당명 변경' 등 구체적인 합당 논의는 실무진 가동 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보고 금명간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 합당 실무진을 정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 대표는 "아마 당원들, 지지자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안 대표는 "저희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공정하게 협의가 돼야 합당을 위한 합당이 아닌, 지지층을 넓히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료는 건강나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닮은 진심만 담다!

건강나이특약 배타적 사용권

· 건강나이보험료특별혜택이란? 피보험자가 고지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신생아보험을 통해 건강나이를 선정하고, 건강-비 적용시 추가적 계약제일 기준으로 추가적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형 및 5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양보험 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일반형보험료는 고액의 사고 및 고액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안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여워 모든 해금보조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해지급금을 합하여 '최고 안전율'에, 만원한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본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령보험협회 심의를 제2020-2791호(2020.09.29)

이러를 함께 하는 여전한 보험 신한생명

2학기 전면등교 앞두고 ‘급식·과밀학급’ 불안불안

가림막·순차배식 불구 감염위험 크고 급식 길면 수업 차질 “우선 백신 접종부터 서둘러야”...교육부 20일 로드맵 발표

교육 당국이 2학기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원활한 급식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과 과밀 학급의 밀집도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등교수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 관계자들은 16일 “2학기 전면 등교는 등교 인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교내 밀집도가 커진다는 점에서 학교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급식 시간엔 학생들이 실내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만큼 학교 방역의 가장 큰 취약 지점으로 꼽힌다. 가림막을 치고

학생 절반씩 순차 배식하는 시차 급식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학교 규모에 따라 급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부제’나 ‘4부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상운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서울 봉은초 교장)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 위해 시차 급식제를 도입하면 오전 10시에 식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학생들이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준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학교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신목중학교를 방문해 급식실을 둘러보며 점검하고 있다.

을 세웠는지,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한 방역 지침을 내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학교는 순차 배식 외에 ‘교실(반별) 배식’을 통해 급식실 밀집도를 낮추고 배식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교실 배식 △오전·오후반 등이 사실상 전면 등교를 앞두고 급식 및 과밀 학급의 밀집도 개선 해법으로 등장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안들은 지난해 코로나19때 등교해법을 재탕하는 수준”이라며 “안전한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상황에 따른 급식실의 모든 좌석 칸막이 설치와 학년·학급별 순차 배식, 교실 배식 등을 통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면 등교와) 관련된 사안은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일 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서 쓴다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9월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털유펜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수도권·대전·세종·제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1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이용자가 23만 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철도산업 한눈에 '부산국제철도기술 산업전'(Rail Log Korea)이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코레일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고속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전시회인 이 행사에는 95개 기관과 업체 등이 810개 부스 규모로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가스공사 “저탄소 에너지시대 주도”

LNG로 선박연료 공급...친환경 연료전환 사업 확대

한국가스공사가 37년간 축적한 천연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병커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LNG 병커링선을 이용해 LNG 추진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급 방식이 ‘선박 대 선박(STS)’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LNG 병커링 시장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2030년이 되면 전세계적인 LNG 병커링 수요가 2000만~3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셸과 토탈은 2030년엔 LNG 병커링이 전체 선박연료 시장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LNG병커링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엔지병커링을 설립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STS 방식의 LNG 병커링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인 한국엔지병커링은 통영 LNG 기지에 국내 유일의 LNG 선적 전용설비 4기와 LNG 병커리용 겸용 선박 ‘SM 제주 LNG 2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엔지병커링은 지난달 4~6일 3일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SM 제주 LNG 2호를 통해 LNG 수송선에 LNG를 공급했다. LNG 병커링 STS 운영 노하우와 기술적 안전성이 국내 최초



한국엔지병커링이 운영하고 있는 ‘SM 제주 LNG 2호’ 선박.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로 검증된 것이다. 국내 조선사가 STS 방식으로 LNG를 공급받을 경우 조선소 내 LNG 수송선 시운전이 가능해져 선박 적기 인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한국엔지병커링은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 톤을 판매하고 매출 약 1조 원을 달성해 황산화물 8315톤, 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동해와 남해 병커링선 2척, 서해 병커링선 1척과 당진 LNG 인수기지 선적설비 1식을 확보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LNG 병커링사업을 추진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LNG 병커링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통해 초기 병커링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美 부양책 보복 소비 IT경기 호조

펼 펼 난 수출, 하반기도 ‘맑음’

韓銀 ‘수출 평가 및 전망’ 보고서

‘수출 하반기도 맑음.’ 수출이 올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과 비IT 부문을 막론하고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주욱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 요인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들어 IT부문 공급측 요인의 부정적 영향 완화와 주요국 경기회복 등으로 우리 수출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통관기준 수출을 올 상반기 2950억 달러, 하반기 3080억 달러, 연간기준 6030억 달러로 예상한 근거가

됐다. 내년 역시 올해보다 더 높은 6220억 달러를 전망한 바 있다.

우선 소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특히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3월 통과된 데다 최근 인프라 투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수입수요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또,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재화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계저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펜트업(pent-up) 소비(일명 보복 소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다소 주춤했던 IT 경기도 서버와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확대와 일시적 요인

제거 등에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중국 기업들의 수요둔화, 한파로 인한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등 요인으로 4월 일평균 기준 IT 수출은 1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한 바 있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봤다.

최종귀직자를 기준으로 한 우리 수출에 대한 수입수요 기여도(전기 대비)를 보면 올 1분기 중국은 3.8%포인트 늘어 같은 기간 미국(0.4%p)을 앞질렀다. 미국은 지난해 3분기(9.3%p)와 4분기(3.6%p) 중 우리 수출 회복을 견인했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수출중소 ‘다이렉트보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무보, 관세청과 ‘유니패스’ 이용 협업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비대면 다이렉트보험 이용확대에 나선다.

무보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다이렉트보험 이용 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지연 또는 미결제 위험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다이렉트 보험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보험은 간

단한 클릭 몇 번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제도 도입 이후 10일까지 다이렉트보험 이용 금액은 총 230억 원이며, 이번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이용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다이렉트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을 활용해 해외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Life is Good!을 위한 젊은 도전

즐거움 상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꼭 막힌 도시,
시원하게 열어줄래!”**

AI로 교통체증 없이 원활한
세종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LG CNS 박수경

**“지금 이 분위기
빵 터지게 해보자!”**

AI로 취향을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 장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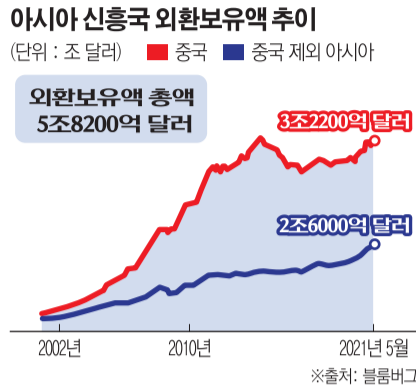
**“신약 개발 속도,
AI로 확 올려볼까?”**

딥러닝 기술로
신약개발 속도를 앞당기는
LG AI연구원
Rodrigo Hormazabal



“美, 곧 긴축의 시간” 현금 쌓는 亞신흥국

연준발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외환보유 6507兆 7년만에 최대
선진국 금리인상 시기 저울질



미국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달러를 쌓아놓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준금리 인상 등 연준 행보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5월 기준 3조2200억 달러(약 6507조 원)로, 2014년 8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기준으로는 2조6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에 달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신흥국은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9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로, 6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대만과 한국이 각각 5430억 달러와 4565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2200억 달러로 5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약달러와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증가가 한몫했다.

이들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테이퍼링(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이나 금리 인상 카드를 고심하는 연준발 시장 변동성 탓이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촉발한 ‘긴축 발작’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국제수익률 급등 등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선명하다.

ING그룹의 니콜라스 마파 이코노미스트

트는 “신흥국들은 과거 통화 전쟁으로부터 확실히 배웠다”며 “그들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뒤바꾸거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파급력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짚기도 했다. 지난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도 비둘기파적인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신흥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정책 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흥국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동안 선진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기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책 금리가 하반기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도 지난달 서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바이든 ‘빅테크 저격수’ FTC 위원장 임명

IT대기업 비판론자 리나 칸 지명... 실리콘밸리, 당국·유럽 압박에 긴장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표적인 ‘빅테크(IT 대기업)’ 비판론자인 리나 칸(32·사진) 컬럼비아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를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가뜰이나 빅테크에 대한 유럽 내 압박이 커진 가운데 칸의 등장으로 미국 당국의 공세도 커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이다. 해당 논문 발표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 참여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원했다. 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빅테크 기업들을 강제로 분할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을 발의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나 칸은 FTC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미국 상원은 칸의 연방거래위원장 인준안을 69대 28로 통과시켰으며, 상원 인준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지로 통곡된 만큼 반독점 당국이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이 실리콘밸리 공룡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칸은 역대 최연소 FTC 위원장이란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인준 후 트위터에서 “의회는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직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명을 지키면서 미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칸은 미국 IT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예일대 재학 시절인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에서 칸은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기도는 낮춰 소비자를 독점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인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이 IT 대기업들을 통제하기에 미흡해 이를 바꿔야 한다고 핵심을 짚은 것

FTC는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칸의 인준안이 사실상 초당적

유럽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이 유럽의 일반개인 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역내 한 국가에서 규제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높이고 잠재적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두 회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웹 브라우저 등에서의 시장지배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팔 휴전 한 달 만에 다시 충돌... 플라스틱인 독립을 지지하는 이슬람 지하드 대원들이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복면을 쓴 채 폭발물을 풍선에 묶고 있다. 이스라엘 쿠우 성향의 우익단체들이 1967년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면서 “이집트인에게 죽음을”을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이자, 플라스틱인 측은 보복으로 폭탄 풍선을 이스라엘에 띄워 이스라엘 남부지대에 1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1일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다. 기자/AFP연합뉴스

늘어나는 ‘탕핑族’ 中 소비회복 발목

〈소비·경제활동을 멈춘 무기력한 청년세대〉

중국에서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안 보이자 그냥 놀고먹기를 택한 것이다. 이들을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있기’란 뜻의 ‘탕핑족’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구 감소보다 무기력한 탕핑족의 급속한 확산을 더 두렵게 평가하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했지만,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2·14일 단오절 휴가 기간 여행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 규모는 2년 전의 80% 미만이었다.

5월 1~5일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에도 여행객 수가 2억3000만 명으로 2019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25% 감소했다.

4월 이후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중국인들이 지갑을 여는 데 신중했던 셈이다. 중국 흥타증권은 “관광 상품 판매가 부진했다”고 밝혔다.

5월 말 이후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진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광저우

는 베이징, 상하이와 맞먹는 대도시여서 소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을 두고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 즉 탕핑족의 소비 의욕이 현저히 저하된 영향이라는 데 무게를 더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3월 실시한 예금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은 22.3%에 그쳤다. 2019년 말까지 그 비율은 26~28%였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이들이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른바 ‘탕핑주’다. 취업난과 혹독한 노동시간, 치솟는 주택 가격 등 암울한 현실에 노력해도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치열한 삶을 ‘보이콧’하는 셈이다.

청년들의 자포자기에 중국 당국의 위기감은 커져간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는 “쾌적한 환경에 숨어 있지만 하면 성공은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재했다.

당국과 기성세대의 혼계에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사람에게 노력만 강요할 뿐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반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EU, 보잉·에어버스 ‘17년 관세전쟁’ 휴전

중에 맞서 ‘공동전선 구축’ 공감대, 5년간 관련 보복관세 유예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04년부터 17년간 이어왔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대해 5년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대표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와 보잉이 오랜 기간의 보복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데다, 이를 틈타 보조금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한 중국 항공업을 함께 견제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미국 정상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회동은 항공기에 관한 돌파구와 함께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

에 브뤼셀을 방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향후 5년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과 EU의 오랜 무역 분쟁을 해결했다”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EU와 항공기 분야에서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함께 맞서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관세유예 협약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효되며 관세 부과는 5년 동안 보류된다. 이번 휴전으로 양측 수입업체들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도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를 편법 제공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2019년 WTO는 EU와 미국 정부가 각각 보잉과 에어

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양측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는 EU 국가들의 와인과 위스키 등에 75억 달러(약 8조380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도 4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EU는 3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실질 관세 부과 시기를 4개월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양측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전 정부가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매긴 관세와 EU가 이에 반발해 미국산 제품에 매긴 보복관세는 아직 유효하다. 이와 함께 EU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부과하려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측 대립도 여전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성대규 신한라이프 초대 사장, 영역확장 ‘큰그림’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검토”

판매 채널 분리해 손보 판매
생보사도 자회사 세우면 가능
베트남·헬스케어 진출 이어
영향력 입증 마지막 시험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원회는 올해 초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에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최근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성대규(사진) 신한라이프 초대 사장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법인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에 이은 그의 마지막 시험대다. 다만 일각에선 ‘1사 1라이선스’ 원칙 아래 오렌지라이프와 진통을 겪으며 통합했는데, 또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 금융당국 입장에서 인가해줄 명분이 떨어진다 주장이 나온다.

성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원칙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했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손해보험 라이선스가 없는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두 개의 생명보험사를 하나로 합치고, 판매 채널을 특화해 손해보험 상품까지 파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가 이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금융당국도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고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사 1라이선스 원칙 때문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했는데, 소액단기보험사 인가를 또 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며 “신한생명과 완전히 차별화된 특화 채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애초에도 오렌지라이프를 두고 통합해 잡음을 일으키는 것 보단 판매 채널을 다르게 해 유지하려는 주장이 있었다.

소액단기보험에서 다루는 종목은 생명보험과 일부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보험,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다. 보장 기간이 긴 연금·간병이나 자본이 크게 들어갈 우려가 있는 원자력·자동차 해상·화재 등의 종목 외에는 대부분이 허용된 셈이다. 또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명보험사가 동일 그룹 내 손해보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손해보험 취급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한화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은 각각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브플래닛생명 등으로 판매 채널을 분리해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보유하고 있던 오렌지라

이프와 진통을 겪으며 통합했는데, 또 다른 자회사 설립 허가가 나올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나아가 신한라이프는 하우스핏을 앞으로 헬스케어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신한라이프 측은 자회사 간 영역이 겹치는 게 아니라 각각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사 1라이선스 원칙 때문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했는데, 소액단기보험사 인가를 또 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며 “신한생명과 완전히 차별화된 특화 채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애초에도 오렌지라이프를 두고 통합해 잡음을 일으키는 것 보단 판매 채널을 다르게 해 유지하려는 주장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성사장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보고 있다. 성 사장은 신한라이프 출범을 앞둔 가운데서도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업 신규 설립 인가를 확보, 1년간의 영업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까지 무사히 안착시킨다면 성 사장은 지주 내에서도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연 기자 sjy@



윤종원(왼쪽 두 번째) IBK기업은행장이 강원도 원주의 서울에프엔비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해피엘엔비를 15일 방문했다. 윤 행장은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이 생활의료기기업체 해피엘엔비의 김두상(‘첫 번째’) 대표와 관계자로부터 공정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기업銀 앱에서 ‘창구예약’ 대기시간 줄인다

IBK기업은행이 모바일 앱 ‘i-ONE뱅크’를 통한 영업점 방문예약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은행 앱을 통해 미리 방문 지정과 시간을 설정해 상담대기 시간을 단축,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은행은 최근 알리오에 ‘영업점 방문예약서비스’를 위한 순번안내시스템 고도화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4월과 5월 이후 세 번째 공고다. 앞서 두 차례 제안요청서를 배포했지만 입찰대상자가 없었다. 기업은행은 오는 21일까지 입찰을 종료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연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앱인 i-ONE뱅크나 빅테크 이용 고객이 개인대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모바일을 통해 영업점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모바일로 영업점 방문예약

하면 은행은 예약현황에 따라 상담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후 고객이 예약일에 영업점 방문하면 은행은 예약고객에게 우선순위를 배치,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번호표를 발권한 후 순번을 대기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방문예약을 통해 순번 대기 없이 예약 시 안내받은 필요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업무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상담내용을 고객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해 관리한다. 추후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과 연계해 향후 전속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방문일정 예약과 필요서류 안내 등의 부가기능을 통해 영업점 방문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며 “직원

행 및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의 대인 접촉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가, 은행 차원에서 대기고객 간 접촉을 줄이고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올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정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스타뱅킹 앱 내의 ‘스마트 예약 상담제’를 통해 방문 지정과 상담업무, 시간, 나아가 직원까지 예약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솔(SOL)의 ‘굿타임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네이버 지도에 영업점 대기 고객 수를 알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디지털브랜치 탭을 통해서 영업점 방문전에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대기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NH농협은행은 은행 앱에서 영업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김범근 기자 nova@

“쌍용차 부실의 원인은...” 다른곳 보는 산은·노조



노조 “마힌드라 경영 실패 탓”
산은, 직원 고통분담도 미흡
시각 달라 해법도 평행선

“2009년 이후 쌍용자동차는 한 번도 정상화된 적이 없었다.”

이는 쌍용차 노사가 ‘2년간 무급휴직’ 등의 자구안을 결정한 뒤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 중 일부다.

이 회장이 언급한 2009년은 당시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권을 포기한 시점이다. 그 이후 쌍용차는 2011년 마힌드라에 인수되고 다시 법정관리에 오르기까지 12년간 쌍용차는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이 회장은 그간 쌍용차 부실의 원인을 콕 집어 설명한 적은 없으나, 이 발언만 두고 보면 쌍용차 노조가 부실의 원인을 단순히 ‘경영실패’로 규정하는 것과는 배척된다.

쌍용차는 2019년 내수 시장에서 판매실적 3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으나 수출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기의 전조가 나타났다. 그러다 마힌드라가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서 최근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급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지난 1월 성명서에서 “마힌드라의 ‘떡튀’가 쌍용차 위기라고 언급한 이유다.”

만약 노조의 주장에 산은도 동의했다면 이 회장의 “정상화된 적이 없다”는 발언의 시점은 2009년이 아니었어야 했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부실화의 원인인 ‘경영실패’는 산은이 보기엔 쌍용차 위기의 유일한 변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쌍용차 노사가 합의한 ‘2년 무급휴직’ 등의 자구안에 대해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 아직 부족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우회적으로 자구안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줄곧 얘기하는 구조조정의 3대 원칙(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고통분담’이 더 전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규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과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화의 원인을 짚는 돌의 시각이 다르니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도 다르게 나타난다. 노조는 대주주의 경영실패가 부실의 원인이나 노동자의 구조조정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신규 투자자를 받을 수 있게 자금지원도 약속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은 노조의 해결책과는 반대로 자구안에 따라 신규 투자자가 확보된 이후에 자금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채권단의 결정만 남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산은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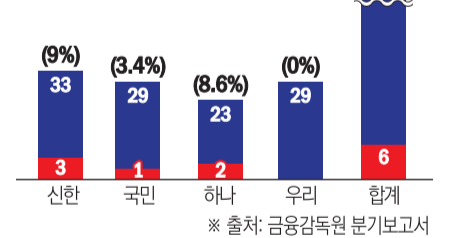
다른 관점에 다른 해결책으로 결국 쌍용차는 노사가 결정한 자구안에 따른 ‘잠재투자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뚜렷한 잠재인수자 후보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신규 투자자의 입장이 나오면 노조든, 채권단인든 입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찬산 기자 jinsan@

4대 은행,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가동

여성 임원 평균 5% 불과

은행 여성임원 현황 (단위: 명, 3월 기준)
■ 전체 임원 수 ■ 여성 임원 수
※ ()는 여성임원 비율



4대 시중은행이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천장(여성에 대한 차별) 깨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직원에 비해 여성 임원이 특히 적은 은행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여성임원 비율 5%에 그쳤다. 지난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은 여성 인력 육성과 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금융권 유리천장은 깨지지 않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은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전사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리더 교육을 통해 여성 임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은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 1기를 출범했다. 1기는 그룹내 여성 부점장급 직원 총 34명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그룹 멘토링 △온라인 MBA △자기주도 학습(인문학, 디지털, 리더십) △독서토론 △소규모 자율 멘토 활동 △전략과제 발표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4대 시중은행중 유일하게 여성 임원이 없는 우리은행도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최초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신한금융도 최근 교육을 시작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3일 ‘신한 슈어호즈(SHeroes)’ 4기 44명을 선발, 6개월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슈어호즈는 지난해 37까지 143명의 여성 리더를 배출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도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인 ‘WE(Womans Empowerment) 스타(STAR) 멘토링’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해 은행에 한해 향후 3년 내 임원 20%, 팀장 30%, 직원 40%까지 확보하고자 지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1395

조선시대에는
소중한 군량미를

2021

지금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군량미를 지키던 장소에서,
현재는 국민의 데이터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국민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이 곳은 KT 용산 IDC 입니다

DIGICO KT

태조 4년(1395년)부터 전국의 군량미를 보관하던 장소인 '군자감 강감터'는 현재(2021년) KT 용산 IDC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 용산 IDC는 국내 최대 테라급 네트워크 구축으로 Cloud / BigData / 5G 대용량 트래픽 전송이 보장되며, 10만대 서버 운영이 가능한 서울권 최대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급 데이터센터입니다

삼성전자 '6G 통신' 테라헤르츠 대역 시연 성공



삼성의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140 GHz 통신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16채널 140GHz 무선통신모듈(가운데)과 이를 구성하는 집적회로 (RFIC·왼쪽) 및 안테나 소자(오른쪽)를 확대한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IEEE 워크숍서 美 UCSB와 발표
15m 거리서 초당 6.2기가 전송
5G 50배 빠른 '초당 1테라' 목표
홀로그래프 통신·항공모빌리티 확장

삼성전자가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UCSB)와 6G 테라헤르츠 (THz)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개최된 국제전기전자 공학회(IEEE) 국제통신회의(ICC 2021) 테라헤르츠 통신 워크숍에서 삼성리서치와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UCSB 연구진이 공동으로 테라헤르츠 대역인 140GHz를 활용해 송신기와 수신기가 15m 떨어진 거리에서 6.2 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보·시연했다고 발표했다. 16일 밝혔다.

기존 테라헤르츠 대역의 시연은 무선주파수 집적회로(RFIC) 또는 모뎀 역할을 하는 계측 장비와 안테나만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삼성전자와 UCSB 연구진은 RFIC, 안테나, 베이스밴드 모뎀까지 통합하여 실시간 전송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6G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테라헤르츠 대역의 높은 경로 손실과 낮은 전력 효율 등 기술적 난제 극복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LTE와 5G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공정 기반 RFIC과 이를 통해 구동되는 128개 안테나 소자가 배열된 송신기와 수신기 모듈, 실시간 고성능 빔포밍을 지원하는 모뎀을 구성해 시연을 성공시켰다.

테라헤르츠 대역은 100GHz ~ 10T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갈수록 넓은 통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 6G에서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에 적합하다.

테라헤르츠 대역은 5G(데이터 전송 속도 최고 20Gbps) 대비 최대 50배 빠른 1 Tbps(1초에 1조 비트를 전송하는 속도)를 목표로 하는 6G 통신의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꼽히고 있다.

6G가 상용화되면 통신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몰입형 XR(eXtended Reality)이나 홀로그램과 같은 신규 서비스가 모바일 단말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동 통신 기술의 적용 영역이 위성 통신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최성현 전무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5G와 6G 기술혁신과 표준화를 주도해 왔다"라며 "지난해 6G 백서에서 공유한 것처럼 테라헤르츠 대역은 6G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시연은 이의 상용화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9년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G 경쟁력 강화와 6G 선형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6G 백서'를 공개하는 등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미스트롯 2 참가자 양지은



수입산 분말이 아닌 좋은 성분 가득한 생알로에만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알로에의 진심을
키웁니다

김정문알로에

주문전화 1588-8870 고객센터 080-022-9191(무료) 공식몰 https://cureofficial.com

현대중 사내벤처 '아비커스' 국내 첫 선박 자율운항

포항운하에 12인승 크루즈 띄워
AI·증강현실 적용 입출항·접안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Avikus)가 국내 최초로 선박의 완전 자율운항에 성공했다. <사진> 아비커스는 16일 경북 포항운하 일원에서 열린 '선박 자율운항 시연회'에서 12인승 크루즈 선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운항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총 길이 10km의 포항운하는 수로의 평균 폭이 10m로 좁은 데다, 내·외항에 선박이 밀집돼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운항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비커스 주도로 열린 이날 시연회에는 카이스트와 한국해양대, KT 등이 참여했다.

아비커스는 이번 시연회에서 인공지능(AI)이 선박의 상태와 항로 주변을 분석해 이를 증강현실(AR) 기반으로 항해자에게 알려주는 '하이нас(HiNAS)'와 선박 이·접안 지원 시스템인 '하이바스(HiBAS)'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 선박의 출항부터 운항, 귀항, 그리고 접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율운항을 선보였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레이저 기반의 센서(LiDAR)와 특수 카메라

등 첨단 항해보조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함으로써 선원 없이도 해상 날씨와 해류, 어선 출몰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선박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비커스는 이번 시연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여객선과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선사와 함께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기술을 통한 대형상선의 대양(大洋) 횡단에 나설 예정이다.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는 "이번 실증에 성공한 선박 완전 자율운항기술을 바탕으로 내년 자율운항 레저보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르노삼성, 부산 사회초년생 출퇴근 전기차 지원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시와 함께 교통취약지역 내 청년 취업 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부산청춘드림카지원사업'의 2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부산청춘드림카는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동서부산권 산업단지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최대 2년간 전기차 및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친환경차 보급에도 도움을 주는 1석 3조 효과로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르노삼성은 2018년부터 3년동안 총 330대의 순수전기차 SM3 Z.E.를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 르노 조에(ZOE)를 새로 제공 중이다. 지난 5월 10일 1차 선발자 35명에게 차를 전달했으며 2차 선발자를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부산시 거주자 중 강서구 및 기장군 내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만 21~39세 청년이다. 부산청춘드림카 사업에 선발되면 전기차 임대료 중 월 42만 원은 부산시가 지원하고 청년들은 연별 보험료 차이에 따라 매달 20만1000원(만 26세 이상) 또는 25만9000원(26세 미만)을 부담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잘나가는 신상 뒤편 유튜버와의 협업 있었네”

유통업계, 컬래버 마케팅 강화

유통업계에서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유튜버가 진행하는 ‘리방(라이브 방송)’이 완판행렬을 이어간지는 이미 오래다. 유통기업들은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유튜버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는가하면 이들과 함께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굿즈’를 내놓는다. 유튜버와 함께 선보인 상품 역시 MZ세대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유튜버와 유통업계와의 협업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오비맥주 필굿은 인기 유튜버 ‘발명! 쓰레기걸’과 함께 제작한 ‘부자되라굿’ 게임카드를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굿즈는 필굿이 신개념 굿즈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진행한 ‘필굿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유튜버 ‘발명! 쓰레기걸’은 가장 참신한 ‘필-굿즈’를 뽑는 소비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해당 굿즈 제작을 다룬 영상은 90만뷰를 달성했다.

이색 굿즈 ‘부자되라굿’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카드게임이다. 필굿의 공식 캐릭터 필구를 활용해 귀여움을 더한 이번

오비맥주 ‘발명! 쓰레기걸’과 함께 ‘부자되라굿’ 게임카드 굿즈 마이세프 ‘허차밍’과 밀키트... 신세계푸드 ‘흔한남매’와 핫도그

굿즈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척하기’ 등 부자를 체험하는 다양한 미션카드들로 구성됐다. ‘부자되라굿’은 오비맥주의 공식 굿즈 사이트 ‘치얼스앤굿즈’에서 7000원 대에 만날 수 있다.

식품업계는 유튜버와 협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다.

밀키트 기업 마이세프는 아티스트 겸 요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유튜버 ‘허차밍’과 협업한 밀키트를 내놨다. 허차밍은 레시피 개발부터 굿즈 제작, 패키지 디자인까지 밀키트 제작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했으며, 앞으로 세 차례에 더 걸쳐 2030 세대의 취향을 공략한 신메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 2종은 ‘허차밍 매콤 로제 스테이크’와 ‘허차밍 청귤&딜 냉파스타’다. 먼저, ‘허차밍 매콤 로제 스테이크’는 최근 돌풍을 일으킨 로제 소스에 스테이크를 찍어 먹는 제품으로, 허차밍의 아이디어로 단맛은 줄이고 매콤한 맛을 살려 중독성



오비맥주의 ‘부자되라굿’ 카드.

있는 고추장 베이스의 로제 소스를 완성했다. ‘허차밍 청귤&딜 냉파스타’는 상큼한 청귤청에 딜의 향긋함을 더했으며, 셀러리, 적양파, 레몬, 새우 등 다양한 식재료의 조화로 여름철 입맛을 살려준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4월 유튜버 ‘흔한남매’와 협업해 ‘올반X흔한남매 핫도그’ 신제품을 출시했다. 215만 구독자를 확보하며 ‘초통령’으로 불리는 인기 유튜버 ‘흔한남매’와 협업한 제품은 ‘올반X흔한남매 핫도그’는 ‘잘핫도그’, ‘모짜체다 핫도그’,



허차밍과 협업한 마이세프 밀키트.

‘BIG치즈콕 핫도그’ 등 3종이다. 각 제품 모두 빵 반죽에 찹쌀을 넣어 전자레인지 조리 후에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제품 패키지에는 ‘흔한남매’ 주인공인 에이미와 으뜸이의 캐릭터를 담았다.

동원푸드의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은 요리 유튜버 ‘심방골주부’와 손잡고 ‘시골 돼지짜글이’, ‘콩치김치찌짐’, ‘등갈비김치찌짐’ 등 한식 HMR 3종을 시장에 선보였다.

‘심방골주부’는 시골밥상, 집밥을 컨셉으로 직접 기른 채소를 비롯해 건강한 식재료로 다양한 한식 레시피를 선보이는 요리 유튜버다.

패션뷰티업계에서도 유튜버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부 기업들은 스타마케팅 대신 유튜버를 내세워 시즌 상품을 알릴 정도다.

할라 키즈는 지난달 ‘할라 키즈 X 흔한남매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출시했다.

에뛰드는 뷰티 유튜버 ‘조효진’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셰딩 메이크업을 돕는 ‘그림자셰딩’과 ‘그림자셰딩 브러쉬’를 선보였고 클리오의 메이크업 브랜드 페리페라는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쿠와 협업한 ‘잉크 브이 셰딩 브러쉬 기획세트’를 내놨다.

유튜버와 상생경영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위메프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 기획전 ‘안사고뽀하니 시즌2’를 내년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 기획전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V커머스 진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쏘양·파뿌리·급식왕 등 유명 유튜버들이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 홍보영상에 직접 출연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메뉴 개발부터 재료 손질까지 외식 식자재 키워드는 ‘맞춤형’

재료 손질부터 메뉴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식자재 사업이 성장세다.

지난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맞춤형 식자재 도입에 적극 나선 것이 이유다.

식자재 업체는 고객사 맞춤형 식자재 공급으로 매출 상승효과를 보는 한편 관련 B2B(기업 간 거래)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화장품과 제약업계에 보편화한 ODM(제조업자 개발생산)이 외식시장까지 번진 셈이다.

CJ프레시웨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난해 월 매출 1억 원 이상의 성적을 내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7곳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에는 공중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른 탤런트 음식 전문점 ‘온센’도 포함됐다.

◇외식 식자재 키워드는 ‘맞춤형’= 맞춤형 식자재 공급은 각 고객사 외식 브랜드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소스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식재료 공급시에도 조리 과정을 간편화하도록 전처리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튀김요리 전문점은 일정 비율로 배합된 기름을 공급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식이다. 카레집, 꽃게집 등 각 식당에서 다르게 쓰이는 당근을 미리부터 손질해 세척부터 절단까지 마쳐 납품하기도 한다. 고객사는 식재료를 씻어 바로 사용하면 된다.

식자재 및 식품업계가 맞춤형 식자재 사업에 주목하는 건 외식업 B2B 시장에서 관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 드는 재료 손질 시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CJ프레시웨이의 수주 비결 역시 ‘맞춤형’ 식자재 공급 경쟁력이다. CJ



채소 손질에서 소스까지 맞춤 고객사 경영부담 ↓ 경쟁력 ↑ CJ제일제당·대상 B2B 강화

프레시웨이는 송림푸드와 제이팜스 등 자사 인프라를 통해 특수 배합된 튀김유, 전용 소스, 규격 맞춤 식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고객사와 협력해 진행되는 맞춤형 메뉴개발도 비결 중 하나다. ‘온센’과 함께 개발한 특제 파우더가 대표적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적시 적소에 배송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프랜차이즈 고객사에 필요한 맞춤 식자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부담은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대상 등 B2B 강화= 식품업계도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다루는 B2B 브랜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CJ제일제당이 기존 ‘B2B 사업담당’을 ‘본부’로 승격·확대 개편하고, 신규 론칭한 브랜드 ‘크리에잇(Creait)’이 대표적이다.

대상은 지난 2019년 일찌감치 완전 자회사인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베스트코를 합병하며 맞춤형 B2B 식자재 사업의 포석을 다졌다. 대상이 보유한 식품 제조능력과 베스트코가 보유한 B2B유통 능력을 더해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취지였다.

김혜지 기자 heyji@



세븐일레븐 “친환경 봉투로 교체”

세븐일레븐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해 만든 친환경 봉투를 16일 선보였다. 친환경 봉투는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땅에 묻으면 180일 이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된다. 세븐일레븐은 내달 중 전 점포의 기존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대체할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진로 소주’ 20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

지난해 23억8250만병 판매

하이트진로의 소주가 올해도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의 통합 브랜드 ‘진로(JINRO)’가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영국의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Drink Internationals)’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의 2020년 판매량이 23억 8250만 병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10% 성장한 수치다.

하이트진로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인지하고 발음하기 쉽도록 모든 소주 제품들을 ‘진로(JINRO)’로 통합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증류주 시장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상황에서 참이슬 등 한국 대표 소주는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진로(JINRO)는 2위를 기록한 필리핀 1위 증류주 브랜드보다 3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는 ‘20년 연속 전세계 증류주 판매 1위’를 기념해 16일부터 한달 간 공식 SNS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특별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총괄 상무는 “대한민국 대표 소주 ‘진로’가 글로벌 증류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며 “현지화 노력을 통해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서구 국가들에서도 한국 소주가 대중적인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마트24, 배달 확대

자체 앱·네이버 통해 주문 가능

이마트24는 17일부터 ‘이마트24 모바일 앱’과 ‘네이버 주문’을 통해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편의점 업계에서 이마트24가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요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이어 자체 모바일앱과 네이버 주문에서도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고객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마트24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1만 원 이상 주문 시 배달이 가능하며 배달료 2400원은 동일하다.

이마트24는 고객이 보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 주문 채널을 지속 늘리는 동시에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지속하고 있다.

이마트24는 6월 4주차 평일(21~25일)에 요기요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주차 할인 기간을 제외하고 이달 말까지 세트 4종 구매 시 3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 카카오톡 주문하기에서는 이달 말까지 씨티카드/BC카드와 연계해 30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정부와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논의 중”

바이오 쉐린

이명세 사페론 대표

‘누세핀’ 2상 마치고 내달 데이터 발표 앞뒤

안전성 입증... 염증인자 광범위하게 차단

‘인플라마좀 억제’ 기술로 아토피 치료제 개발

임상 결과 나오면 작년 말 IPO 재도전



이명세 사페론 대표는 1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누세핀 성공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항염증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던 치료제에 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가 국산 1호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안은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뒤를 이을 2호 치료제의 탄생은 요원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기업은 여럿이고, 2호 치료제 타이틀에 도전한 업체도 적지 않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일약약품은 러시아 임상 3상 실패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접었고, GC녹십자는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를 자진 취하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마무리=이런 가운데 전 직원 40명이 채 안 되는 바이오벤처 ‘사페론’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의지는 단연 눈에 띈다. 사페론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의 임상 2상까지 마쳤고 다음 달 최종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세핀은 중증도 이상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였다.

14일 서울 강남구 사페론 본사에서 만난 이명세 대표는 “최종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께 나오는데 중간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최종 결과도 그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치료 방식에 따라 중화항체(항체치료제),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나뉜다. 사페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은 항염증제로, 현재 텍사메타손(염증 완화 스테로이드제)이 쓰이고 있다. 누세핀은 사페론이 가진 핵심 기술인 ‘인플라마좀(염증복합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인 신약이다. 기존 항염증제가 한정적인 종류의 사이토카인(과한 면역반응) 생성을 억제하는 반면 누세핀은 염증복합체를 억제해 감염 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염증을 광범위하게 차단한다.

이 대표는 “기존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는 안전성 문제가 있지만 누세핀은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나왔고 사이토카인 중 일부만 억제하는 기존 약과 달리 우리는 인플라마좀을 억제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염증제는 바이러스가 인플라마좀을 건드려 일으킨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원리인

만큼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고, 이번 누세핀 성공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항염증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이 25%를 웃돌았다. 따라서 조건부 허가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 누세핀을 상용화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예방접종이 활발한 국내를 비롯한 선진국은 사페론이 겨냥하는 시장이 될 수 없다.

이 대표는 “누세핀은 개발도상국과 인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가지고 현지 기업들과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시작할 임상 3상은 한국뿐 아니라 루마니아, 인도, 동남아 2-3개국에서 300-600명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등 치료제 개발 중=누세핀 개발 방식으로 쓰인 ‘인플라마좀

억제’는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현재 이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도 임상 2상을 마치고 최종 결과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이 외에 인플라마좀 억제 방식을 통해 알츠하이머,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등도 개발 중인데 올해 안에 임상 1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최근 미국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아두카누맙(제품명 아두헬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18년 만에 신약이 출시됐는데 사페론은 이 소식이 자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누세린’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페론은 3월 누세린을 국전약품에 기술이전했고, 현재 임상 1상을 위해 함께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아두카누맙의 기전은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줄여준다는 것인데 누세린 역시 전임상 단계에서 인플라마좀을 억제하면 베타아밀로이드가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도출했다”라며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이 대개 2-3년씩 걸려 증상이 호전되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인플라마좀 억제가 베타아밀로이드를 줄여준다는 걸 보여준다면 임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페론은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바이오USA에서 누세린의 이같은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한 사페론은 코로나19·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2상 데이터 등으로 내년 IPO(기업공개)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는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자금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있지만, IPO 이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개발한 신약을 기술이전하지 않고 생산, 판매까지 맡아 상업화하는 게 회사의 장기적 목표”라며 “누세핀이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위탁 개발서 마감 공정까지 ‘엔드 투 엔드’ 솔루션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전 제시
존립 ‘바이오 디지털’ 개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 디지털(BIO Digital) 2021’에 참가해 회사의 CDMO(위탁생산·개발) 경쟁력을 알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립(사진) 대표가 올해로 28회를 맞는 바이오 디지털 2021에서 15일 미국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 오비드 테라퓨틱스 제레미 레빈 대표가 진행하는 발표 세션의 개회사 연사로 나서 회사가 쌓은 10년의 업적, 사업 확장 계획, 비전 등을 업계 리더들에게 소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환해 열렸고, 10일 개막해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첫 해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해 행사에 참가했다.

존립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가 마주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높은 품질과 빠른 속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모더나의 mRNA-1273 백신의 무균 충전 및 마감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온 만큼 위탁 개발부터 바이오 안전 테스트, 무균 충전 및 마감 공정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미션으로 여러분에게 보다 큰 성공을 더 빠르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샌맥아워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장준영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룹장은 바이오 포럼 리더인 토니 길과 일대일 인터뷰에 참여해 차별화된 CDMO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박미선 기자 only@

모더나 백신도 이번주 투입 “9월까지 3600만명 접종 무난”

모더나, 국가출하승인만 남아
30세 미만 의료인에 접종 계획
노바백스, 임상결과 제출 후 심사

안센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까지 국내에 도입되면서 백신 예방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는 전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이미 달성했고, 9월까지 3600만 명 접종 목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더나, 국내 도입 4번째 백신=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5000여 회분을 15일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모더나 백신은 지난달 21일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을 상급종합병원 45곳에 배송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됐다 30세 미만 희귀혈전증 우려로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보건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국내 도입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안센에 이어 모더나까지 총 4종으로 늘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4일 87만7000회분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상반기 도입 물량으로 세웠던 백신 물량(881만3000회분)이 모두 국내에 들어왔고, 화이자 백신은 이날 오전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백신 65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상반기 배정 물량 700만 회분 가운데 이날 도착분을 포함해 570만 회분이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130만 회분은 이달 중 차례로 도입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측면이 백신 공급 부분인데 상반기에 백신 공급이 차질없이 계획했던 대로 이뤄졌고, 9월까지 백신 공급 역시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3600만 명 1차 접종을 달성하는 목표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로고를 배경으로 검사 튜브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노바백스, 임상 3상서 90.4% 예방률=미국 제약사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도입될 5번째 백신으로 꼽힌다. 노바백스는 14일(현지시간) 임상 3상에서 90.4%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증 감염 예방률은 100%였고 주요 변이 바이러스 예방률도 93%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총 4000만 회분 도입 계약을 맺었는데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바백스는 아직 해외 규제당국에 허가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4월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비임상 및 임상 1/2상 결과에 대해

사전검토에 착수했고, 노바백스 측이 최종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표를 달고 공급·유통될 예정이다.

◇“정부, 국산 백신 개발 힘 실어줘야”=한편 다국적 제약사 백신의 기술이전, 선구매 노력 외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원희목 회장은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백신주권, 제약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국산 치료제 등의 탄생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에 진입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5곳이다. 모두 임상 1상 접종을 완료한

상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제넥신은 현재 임상 2상에 진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중 임상 3상 시험계획서(IND)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셀리드는 8월 중 임상 2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유바이오로직스는 9월 초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산 백신 자급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시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미 허가된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수만 명이 이르는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해외 규제당국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비교임상을 통해 임상 3상을 시행하기에 국내 업체로서 부담이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백신 개발 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 허가에 한정된 비교임상으로 3상을 진행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정도감사, 양보 못 할 원칙”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1주년

코로나로 기업 경영난 가중
감사에 빈틈 생기지 않도록
회계법인 자구책 마련해야
‘지식공유플랫폼’ 구축·운영해
빅4-회계업계 정보공유 활성화



김영식(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도감사(正道監査)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김 회장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다. 어려운 때일 수록 정도를 가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등록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회계법인들의 대표이사과 품질관리실장들과 만나 타협 없는 강력한 품질관리를 주문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계 개혁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선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뢰부감사법 도입 이후 늘어난 회계 관련 비용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완화적인 회계 개혁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기업 입장을 고려해 지난 9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의 미세조정을 통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며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코로나 환경에서 기업 감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 시간을 더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주기적 지정제 등의 회계 개혁을 통한 경제적 효과, 국가 신뢰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비용 증가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선거부터 강조해온 회계업계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 회장은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대표이사(CEO)를 역임하면서 회계업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빅4와 중견·중소형 회계업계를 잇는 김 회장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지난해 8월, 김 회장은 취임 이후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취임 즉시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왔다”며 “회계업계의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빅4’ 회계법인이 가진 여러 발전된 업무 툴(TOOL)을 중견·중소 회계법인과 무료로 공유하면서 지원 분야도 점차 넓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 공공부문에서의 회계개혁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학교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도 여러 건 마련됐다”며 “이들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리 시장 흐름에 발맞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재’를 양성할 것을 선언했다. ESG 연구와 현안 대처를 위해 ‘ESG 위원회’를 내일 있게 운영하고 ESG 외부인증과 시장 활성화, ESG 전문가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한국투자, 부실 사모펀드 100% 보상

라임·옵티머스 등 805억 추산... 7월 중 마무리

한국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일문(사진)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 조치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 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텔리아, 미르신탁 등으로 총 판매액은 1584억 원이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은 소비자 보호 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선지급 때와 동일하게 향후 별도로 분할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사장은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강조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무겁게 판단한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하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결정이 금융당국의 팝펀딩 관련 제



재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결정했다고 하면 아마 금감원에서 심의하는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상품 시장의 선진화를 당사가 선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내부 보상기준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보증 실적상 실적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적상 실적성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대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위반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고객 형평성을 위해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ljh@

코스피 연일 신기록, 3300 고지 ‘눈앞’

韓기업 실적전망 개선되고
주주환원 늘며 증시 매력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달링룸 현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중기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05포인트(0.62%) 오른 3,278.68로 종로했다.

코스피가 33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코스닥 지수도 다시 1000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과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려 국내 증시가 황소 등’에 제대로 올라탄 형국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0.05포인트(0.62%) 오른 3278.68에 마감했다. 사흘 연속 증가기준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장중에는 3281.96까지 치솟아 최고가를 다시 썼다.

코스닥지수는 998.49를 기록,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상승 랠리는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올해와 내년 기업 실적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높아진 증시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

해 199조 원대 안착하는 데 이어 2022년 218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상 최고치이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정점 이던 2018년(197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평가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가부도위험을 뜻하는 CDS 5년물 프리미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500bp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인 18bp 수준까지 하락했다. 향후 글로벌 자금 유입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재정 및 외화 건전성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던 주주 환

원이 최근 많이 늘어난 점도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자산시장과 실물경기와 괴리가 큰 데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면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장의 신고가 행진은 백신 등 호재성 변수에 반응한 것이고 주가 상승을 이끌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시 과열을 판단하는 지표인 ‘버핏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 총액을 명목 국내 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버핏지수는 이날 기준 140.19%나 된다. 이 지수가 80% 아래면 저평가, 100%를 넘으면 고평가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인 점도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기영 기자 pgy@

“슬림해서 편리하게 투자 가능” 삼성증권 간편투자앱 O2 출시

삼성증권은 편의성을 대폭 보강한 간편 투자 앱 ‘O2(오투: 오늘의 투자)’를 정식 오픈하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투린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오투는 기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대비 전체 메뉴 수는 크게 줄이고, 자주 쓰는 기능은 한 화면에 모아 투자자 관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 앱(mPOP)의 510개 메뉴를 78개로 줄였다. 홈 화면에는 이용자들이 주로 조회하는 ‘총 잔고’, ‘보유종목’, ‘관심종목’ 등 주요 기능들을 모았다.

앱에서 사용되는 각종 증권 용어도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매수, 매도 등의 표현 대신 바로투자, 팔기 등으로 바꾸고 차트도 보기 쉽게 간소화했다.

관심종목 및 보유종목의 최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한 화면에서 국내외 주식 주문이 모두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갖췄다. 설경진 기자 skj78@

“계열사 상품이라도 경쟁력 없으면 퇴출”

미래에셋, 판매기준 강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상품 판매 기준을 강화해 경쟁력 없는 투자상품은 계열사에서 만든 것이라도 내놓지 않고 경쟁력 있는 상품만을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상품 선정위원회의 상품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창립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제3의 평가기관에 의해 선정된 우수한 펀드를 판매하게 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판매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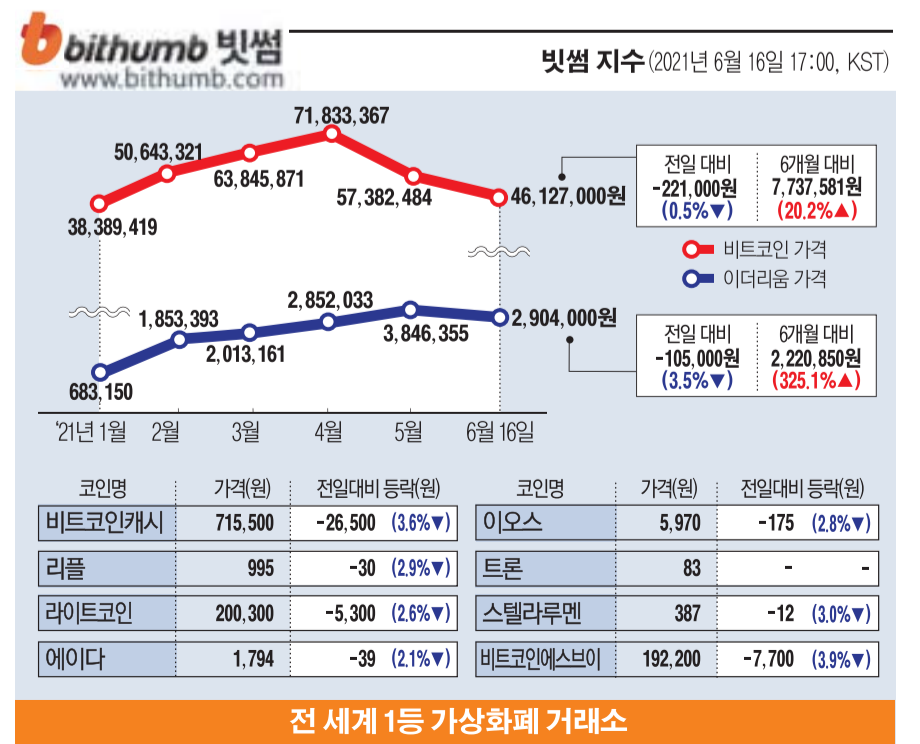
드 수의 감소 영향이 계열사에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언을 통해 미래에셋그룹 상품 판매 라인업에서 계열사 상품이 약 70%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품의 선정에서부터 운용,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임직원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최근 투자시장으로의 머니부르를 지켜 보면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고객관점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철저한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반려동물 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미용 중 발생 가능한 학대 근절
車 활용 이동 애견미용업도 포함
조건미달 번식장 영업정지 조치

동물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건을 막기 위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을 무리하게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운영 중인 번식장은 앞으로 동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막고, 사고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려는 조치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애견미용업도 해당하며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적용되며



전통, 현대, 그리고 하늘 16일 서울 광화문 위로 파란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어우러져 상쾌함을 더한다. 연합뉴스

이때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미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장모업, 판매업 중 경매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견카페와 호텔로 대표되는 위탁관리업종에서 요구해온 형평성도 맞추게 됐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을 좁은 철창에 가둬두고 번식해 판매하는 농장들의 상황도 보다 개선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장의 사육 설비는 △사육 동물 몸

길이의 2~2.5배 이상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개의 경우 운동 공간을 설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설비기준은 권장 사항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었지만 1년 뒤부터는 의무사항이 된다. 2018년 3월 22일 전 등록된 기존 생산업자들은 바닥에서 띄워 사육하는 '뜯장' 설비에 바닥 면적 50% 이상의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휴식공간 기준은 30%였다.

동물생산업자의 관리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관리인력 기준은 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2년 뒤부터, 동물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규칙은 3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

'정인이 사건' 양부모 변호인 "변론 모두 배척 부담" 사임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을 정회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종료 이후부터 이들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데 고민해왔다.

그러나 1심에서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등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모인 중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장 씨는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한 바 있다. 새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기한인 23일 변호사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용 기자 deep@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기부행위 유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당시 이 의원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부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허위 발언, 종교시설 명함 배

포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반 당원, 권리 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하고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 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2월 한 종교시설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100억 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올해 고1 '41만 명' 1975년 이후 최저

올해 전국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975년 이후 최저 수준인 41만여 명을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이 꾸준히 이어지며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 수도 각각 1975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6일 학교알리미 서비스와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총 129만1784명으로 지난해 134만6546명에 비해 4.1% 감소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41만3927명으로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듬해인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44만6681명이었다.

오종은 평가이사는 "1950~1960년대 고

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 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만16세 인구는 사실상 역대 최저치"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1970년 21만9448명에서 1974년 고교 평준화 과정이 서울과 부산에서 첫 도입되며 39만1903명으로 증가했고 1975년 평준화 정책이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며 42만9468명을 기록했다. 이후 1980~90년대 70만~80만 명선을 이어가다 2000년대 60만 명대, 2015년 이후 50만 명대, 2018년 이후 4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42만8438명), 중학교 입학생 수(44만9419명)도 1975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손현경 기자 son89@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배우생활 10년, 이젠 매순간 박동하는 삶 살고파”



이투데이 초대석

1인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윤 나무

“수술실을 치우고 도구들의 숫자 세고 핏자국을 지우는 시간, 세수하고 첫 전차를 타러 가는 시간, 미소 띠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순간순간 살아있는 시간인 겁니다.”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된 19세 청년 시몽 랭브르의 심장이식 과정을 둘러싼 24시간의 기록을 담는다. 작품은 시몽의 심장이 이식되는 그 시점만을 묘사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시몽 삶의 마지막이 결정되고, 그 심장이 새로운 누군가의 심장이 되기까지의 24시간 안엔 16명의 인물이 살아 있다. 그 모든 순간이 윤나무의 입을 통해 서술된다.

윤나무는 2019년 우린문화재단에 올려졌던 초연에 이어 국립정동극장으로 이어진 재연까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



배우 윤나무가 8일 서울 중구 카페 헤이더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나무는 “매 순간 살아있는 삶을, 박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삶과 죽음의 경계, 죽음에 대한 윤리와 애도, 생명의 의미 등 접근하기 어려운 진지한 주제들을 다루며 성찰하도록 한다.

“디허설 후 촬영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생뚱맞게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는 내가 뇌사상태가 되면 장기기증할 거야?’라고 물었죠. 시간이 지난 후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아들의 심장이 어딘가에서 뛰고 있다면, 엄마한테는 그게 큰 위안이 될 거 같아요. 당연히 기증하지 않을까?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그러래요. 내용은이었죠. 그 메시지가 힌트가 됐어요.”

윤나무는 공연 자체가 ‘장기기증 독려 캠페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민새롬 연출과 나눴다고 했다. 다양한 인물의 시점을 통해 삶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작품일 뿐, 강한 메시지를 심어주려는 목적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걸 기록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이야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매력적인 텍스트예요.”

그러서일까. 장기를 받은 자와 기증한 자의 입장을 신파적으로 그려내지 않았다는 것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시몽의 죽음에 매몰되지 않고, 새 삶을 찾는 사람의 기쁨을 판타지적으로 그려내지 않는다.

초연 때보다 극장의 크기는 커졌지만, 조명, 음향 등 그 외의 조건은 그대로다. 더블 캐스팅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상규와 민새롬 연출 등 스태프의 인생이 1년 6개월 더 늘어났을 뿐이다. 다만 공간이 바뀌면서 관객의 마음과 심장이 몇백 개가 더 늘어났다는 걸 윤나무는 실감했다.

“모든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요. 간혹 ‘나 왜 이렇게 멍하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공연을 보고 뛰었던 심장의 울림을 다시 느끼신다면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삶이 빠질 때 마다 삶에 기쁨칠해질 수 있는 작품으로 남고 싶어요.”

윤나무는 인터뷰 중 ‘시몽의 몸은 우리가 손만 내밀어서 꺼내면 되는 장기 보관소가 아닙니다’라는 대사를 던졌다. 그러면서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저는 무엇을 기록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데뷔 10년을 맞은 윤나무는 늘 살아있는 배우이고 싶다. 잠시 멈춘 뮤지컬 공연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요즘이다.

“드라마를 하면서도 연극을 하는 건 제가 무한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감각이 없으면 관객에게 탄로가 날 거예요. 늘 감각을 유지하며 무대 위에서 살아있고 싶습니다.” 김소희 기자 ksh@

뇌사판정 받은 19세 청년의 하루 그 시간엔 16명의 인물 녹아 있어 ‘장기기증’ 강한 메시지는 안 담아 감각 유지해야 무한한 순간 창출 잠깐 멈춘 뮤지컬 다시 도전하고파

기에 참여하게 됐다. 윤나무는 120분 동안 해설자, 병원 의사, 청년의 부모, 심장을 이식받는 환자 그리고 시몽과 그의 여자친구가 된다. 윤나무는 “해설자는 윤나무 자체로 보시면 된다”고 했다. 그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 명씩 만나면서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그 사람이 되면서 극의 중심점을 이룬다.

“한 사람의 인생이 24시간 동안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16명의 인물을 혼자 채워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죠. 그 인물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단편이지만 그안의 깊이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가장 고민했습니다.”

윤나무는 1인극이라는 생각을 지운 채 무대에 오르고 있다. 화자인 윤나무가 한 명 한 명의 삶을 진심으로 만나다 보면 120분은 의식하지 못한 채 훌쩍 지나가 있다.

이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도 완전히 잊어버린다.

“삶을 소중히 여긴다고 죽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누군가에겐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한순간이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는 때일 수도 있다. 작품은 생과 사에 대한 인식이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한다. “저희 형이 목사인데, ‘너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매 순간 살아있는 삶을, 박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장기기증’이라는 강렬하고도 복잡 미묘한 소재를 통

새로 나온 책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김민환 지음/ 문예중앙 펴냄/ 1만8000원



소설의 중심에는 풍양 여운형 선생과 노선을 함께했던 봉강 정해룡이라는 역사적 실재 인물이 있다.

보성 화천면 봉강리의 봉서동에는 정해룡 고택이 자리잡고 있다. 집터 뒤편 거북이 등에 해당하는 봉우리가 동그렇게 있고, 거북이 주둥이 바로 밑에 집터를 잡았다. 그래서 이 집을 ‘거북정(亭)’이라 한다. 명당에 자리잡은 이 아름다운 장원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배어있다.

호남에서도 손꼽히는 천석지기 부농이었던 정해룡은 일제강점기 여타 지주들이 걸었던 친일의 길과 광복 후 한민당을 택하는 대신 독립운동과 통일된 한반도를 꿈꿨다. 그의 선택으로 그의 가솔들은 죽음의 행군과 다름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다. 1980년 이른바 ‘보성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한 집안에서 32명이 체포된다. 사형과 징역을 받는 등 혼란의 시기에 맞선 고향은 참혹했다.

영작문의 정석

박우상 지음/ 비비트리북스 펴냄/ 2만 원



학교나 학원 등 일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은 ‘영어로 글쓰기를 배울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말을 한다.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받아서 어렵게나마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교정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훌륭한 코치로부터 제대로 된 첨삭 코칭을 거치지 않으면 영작 실력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영어학자이자 미국학자인 저자는 영문 글쓰기의 핵심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영문 글쓰기의 기본 공식을 가르쳐준다. 다른 유사 문제들을 풀 때도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성장년. 비리와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반만하지 않다. 실체와 책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내외적 디딤돌과 선례들은 존재를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성공담과 재도약하는 대우를 받고 실천적인 꿈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어떤 나만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독독한 성장잡기이다. X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핵심과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를 주는 멘토도 선배도 없어서 힘들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민중합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꿈을 연결,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걱정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회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매출의 자체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 및 꿀팁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서문 / 230쪽 / 국문판 / 값11,000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839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약)(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약)(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제4공학관 신축, 신한프라자 증축)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및 사근동 223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한양학원
라. 사업면적 : 842,447.51㎡ (증 108,927.20㎡)
마. 건축계획
○ 대지면적 : 520,262㎡ (제1캠퍼스 411,356㎡, 제2캠퍼스 108,906㎡)
○ 연 면 적 : 842,447.51㎡ (증 108,927.20㎡)
○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 사업기간 : 2020.12.~ 2023.07.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1년 6월 17일 ~ 2021년 7월 15일(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사근동주민센터, 마장동주민센터, 행당1동주민센터, 용답동주민센터, 응봉동주민센터, 성수1가2동주민센터, 송정동주민센터
다. 공람내용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약)(초안)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같음
○ 제출내용 : 본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생활환경의 피해와 저감방안 등의 의견(평가서 초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등)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후 02:00
나. 장 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
다. 내 용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약)(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본 설명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개최하며, 이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함

4. 기타사항 : 초안 및 공고문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02-2286-63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의 시작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GS칼텍스**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플러스'를 시작합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배구조연구소장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③

회사 측과 주주제안 측 모두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 신설'이라는 회사 측 안건에 대하여 주주제안 측은 "내부거래위원회는 당 회사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보상위원회는 당 회사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등 경영진과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해당 사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성원의 독립성'까지 추가하는 디테일을 보여줬다.

모든 사건에는 스토리가 있듯 종종 외면보다는 내면을 살펴야 할 때가 있다.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이다.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를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 안건과 연관된 원인, 배경 등을 보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올해 1월 개최된 대한항공 임시주주의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좋은 예이다. 개정 요지는 발행 가능 주식 규모를 2억 5000만 주에서 7억 주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임시주총 즈음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검토하고 있는 시기였고 인수 합병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발행 가능주식 한도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보통 '현재 발행된 주식'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잠재적 희석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진율은 발행 가능한 주식의 76.4%까지 늘어난다. 피상적으로는 안건에 대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1·2위 항공사 간의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시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었던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지원 이슈까지 있었

다. 따라서 단순한 찬반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총 안건도 이러한 상황과 유사했다. 이 경우 안건 자체뿐 아니라 회사·주주제안 동시에 위원회 설치 안건이 나오게 된 '원인 및 배경과 더불어 경영권 분쟁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며 판단해야 한다. 정관 개정 두 번째 검토 안건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회사 정관 제34조 개정)였다. 회사 측과 주주제안 측 모두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 신설'이라는 회사 측 안건에 대하여 주주제안 측은 "내부거래위원회는 당 회사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보상위원회는 당 회사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등 경영진과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해당 사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성원의 독립성'까지 추가하는 디테일을 보여줬다. 안건 자체만 보면 해당 안건 결의에 '사내이사 참여 여부'만 다른 것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전후 사정을 살펴 정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 검토해 보자. 대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지배주주

회장에 대하여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을 통해 아들에게 107억5000만 원을 대어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배임 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2019년 사내이사 선임 당시 5곳의 회사에 겸임하고 있었는데 지배 주주로서 월등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고려한 겸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내부 거래의 혐의가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정관에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도 위원회 참여와 결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회사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실천 의지마저 모호해 보일 수 있다. 당 연구소는 주주제안의 안에 찬성했다. 두 번째로 보상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영진 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본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직원 평균 대비 CEO 급여'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적정 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경영진 '보수 산정 방식과 근거'를 본다.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2020년 2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1년 1분

기에는 1970년 창립 이해 최대 실적을 이뤘다. '회사 실적 및 재정 상황에 대한 기여도, 임원의 성과,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원별 급여 인상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소명을 수용하더라도, 경영진 보상은 주총 결의와 규정 이외에도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르면 하는 것이 면밀한 객관성 면에서는 더 타당하다. 따라서 당 연구소는 보수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구성원까지 전원 사외이사 '정관에 규정'한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기준 지난해 회사가 지배주주인 회장에게 총 51억76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전문경영인 사장에게는 8억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회사에서 발표한 '거버넌스 업데이트(Governance Update)'에 의하면, 두 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된 후였다. 디테일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 정관 두 번째 이슈에서는 주주제안 안건이 단연 돋보였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코로나19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작년 초에 일시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조치가 지구 온난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2030년까지 0.01℃ 효과 정도로 미미하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는 여전히 큰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이 최근에 우리의 문화와 기후 행동이 코로나 19 대응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WCCF는 문화에 대한 세계 40개 글로벌 리더십 도시의 네트워크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긍정적 측면은 오염과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지난해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로 산업 활동이 감소하고, 여행 횟

코로나 대응, 결국 환경과 문화의 문제

수가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 물질도 줄었다. 그러나 봉쇄조치가 조금씩 해제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반등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 정부가 즉각적인 정책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전 세계 배출량은 반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개인 보호 장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의료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기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택터근무 확대로 자동차 이용은 줄지만, 대중교통으로부터의 감염을 피해 자동차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문화 정책에서 해결과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 각국 시 정부의 정책은 작년 부터 코로나 비상 대응이 우선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환경 정책이 밀리면서, 환경 자금, 계획, 행동 역량과 자원, 대중 참여가 부족해지고 있다. WCCF에 참여하고 있는 40개 도시도 코로나 대응 기금 중 3~

5%만 환경 복구에 사용하고 있다. 문화 정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의제, 자금, 거버넌스, 인력, 역량, 환경 지식과 기술 등이 약해지고 있다. 공공 정책을 통해 환경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장기 회복력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의 환경 시스템이 많이 취약한 것을 알게 됐다. 탄소 배출량 반등 현상으로 재생에너지와 국제 협력 같은 구조적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생 서식지 파괴는 전염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고, 생태 복원은 건강, 경제, 환경 등에서 도움을 주기에 공동에 근거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도 반영해야 한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역 사회 복지가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저탄소 전환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도시의

환경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빈곤 퇴치, 사회적 평등과 함께 환경 지속 가능성을 제 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문화와 기후 비상사태 대응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우선 탄소 배출 반등을 막아야 한다. 경제회복으로 올해 배출량은 반등이 예상돼 문화를 통해 이를 줄여야 한다. 그 대상은 도시 디자인, 교육, 디지털 서비스, 관광, 고용, 재교육, 다양한 펀딩 등이다. 문화 시스템 전환에 자금을 지원해 녹색 회복, 창의적 실천, 순환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금 제후를 통해 문화 자금을 환경 목표와 연결하여, 녹색 복구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자, 관객 등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참여 활성화에도 문화를 활용한다. 이는 표적 집단 참여, 지역 사회 구축, '회복'을 넘어서는 수준 전환, 새로운 플랫폼과 활동 등에 이바지한다. 결국 코로나 대응은 환경과 문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조지프 애디슨 명언
"불행은 그 자체의 약한 속성이 아니라 그를 겪는 이의 느낌을 통해 측량하는 것이다."
영국의 수필가, 시인. 국회의원에 선출되어 만년에 이르러까지 의회정치에 참여했다. 그는 소꿉친구 R. 스틸과 '스펙테이터' 신문을 창간해 274편의 에세이를 썼다. 오늘 세상을 하직했다. 1672-1719.
- ☆ 고사성어 / 자천우지(自天祐之)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순조롭다"라는 말이다. 주역(周易) 계사(繫辭) 상전(上傳)에 나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길하여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다[自天祐之 吉无不利]." 공자(孔子)는 "자천우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돕는다는 것은 '조력(助力)'한다는 뜻이다. 조력은 '힘써 도와준다'라는 의미이다. 하늘이 돕는 것은 순응하는 데 있고, 사람이 돕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스스로 믿음을 지니고 하늘에 순응하기를 생각하며, 또 어진 이를 존경하게 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길하여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의미다."
- ☆ 시사상식 / PB
'Private Brand'의 약자.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해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직거래를 통해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겨자 개자(芥子)가 변음되었다.
- ☆ 유머 / 똑똑한 학생
점원이 신제품 난로를 보여주며 "다른 난로보다 연료가 절반만 들어간다"고 했다. 부모를 따라간 학생이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점원이 확실하다고 하자 학생이 부모에게 한 말. "그럼 두 개 사세요. 그러면 아예 연료를 안 써도 되잖아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시각적인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외로웠다. 그들은 시간표가 바뀌었는지 몰라 피약별이 내리찍는 운동장에 혼자 앉아 있었고, '장애인은 인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풍날 운동장에서 관광버스를 지켜보아만 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엄마들은 다짐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 2017년,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엄마들은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다. 지난해가 되어서야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서진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올해 초 첫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왔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특수학교(서진학교)가 설립되기까지 7년간의 여정을 담았다. 영화는 발달장애인에게 학교는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기자수첩
유혜림 자본시장부/wiseforest@



학교를 넘어 일터로 가자

터전이라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 영화가 불현듯 생각난 것은 여의도 증권가의 사내 카페를 들르면서였다. 북적이는 점심시간, 차분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얼음 컵을 채우는 청년을 만났다. 따로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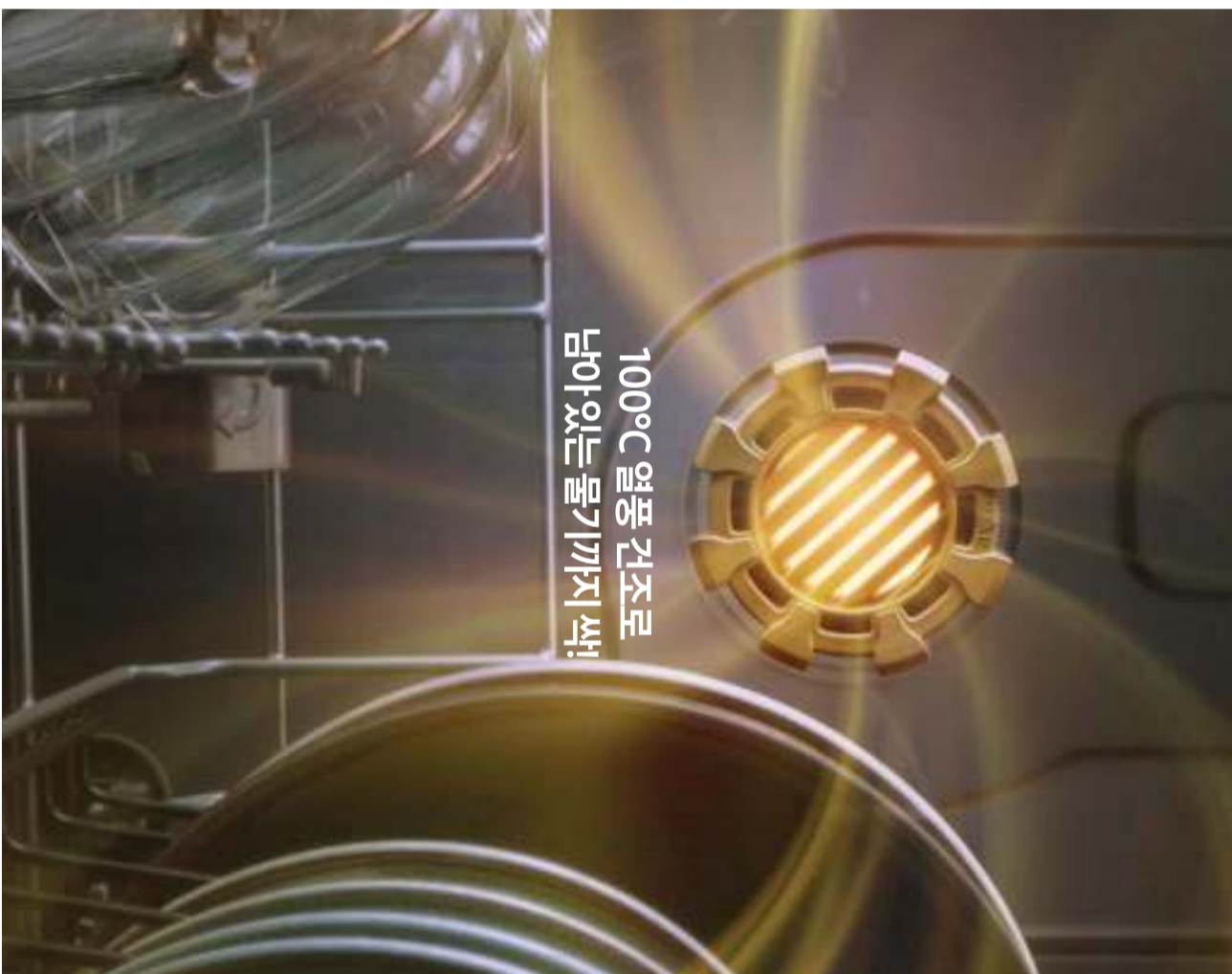
터였음을.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태호 씨(가명)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 즐겁다고 했다. 그는 "얼음 넣고, 샷 넣으면 끝이다. 다른 음료보다 쉬워서 좋다. 또 여기(파크원 타워2)는 건물이 높아서 좋다"며 웃어 보였다. 그

에게 이곳은 소중한 '일터'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고 취업상 지위도 불안정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어도 의무 사업체 절반 이상이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만다. 어렵게 학교 교육을 마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교실을 나와도 이들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삶이 또다시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기업이 손을 잡아줘야 할 때다.

SAMSUNG



“고인 물기는 영 찜찜하네..”



100°C 열풍 건조로
남아있는 물기까지 싹!



BESPOKE 에게 맡기세요



애벌 세척 필요없는 스팀 불림

진입하게 쏘아주는 360° 제트샷

구석구석 씻어주는 4면 입체물살

99.9999% 살균하는 고온직수·젓방살균코트

남아 있는 물기까지 싹! 100°C 열풍 건조



-물감: 64°C
-Fan-Heater: 65.9°C
-Heater-보통구: 104°C
-보통구: 99.6°C

*100°C 열풍 건조는 99.9999% 살균을 위한 고온 직수 및 4면 입체물살을 통한 물기 제거를 도와줍니다. *360° 제트샷은 360도 회전하는 제트샷을 통해 물살이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여 세탁 효과를 높여줍니다. *4면 입체물살은 물살이 4면에서 회전하여 물살이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여 세탁 효과를 높여줍니다. *99.9999% 살균 코트는 99.9999% 살균을 위한 고온 직수 및 4면 입체물살을 통한 물기 제거를 도와줍니다. *젓방살균 코트는 99.9999% 살균을 위한 고온 직수 및 4면 입체물살을 통한 물기 제거를 도와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조하십시오.

가전을 나답게.

한국인의 식기세척기

BESPOKE 식기세척기

